

데칼로그 (3)

- 중재 -

출애굽기

20:4~6

리츄얼?!

나이스 투 미 (Nice to meet me!)

최근 젊은 층 가운데 겉으로 드러나는 내가 아닌 진정한 자아를 찾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리츄얼! 나를 찾아가는 여정

그리고 이러한 자아탐구의 과정을 하나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들을 통해 진행하는 것을 리츄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과거 신앙의 선배들이 해왔던 거룩한 습관들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점이 재밌습니다.

영적 리츄얼, 데칼로그

십계명: 하나님이 가르치신 삶의 방식

십계명의 말씀들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준을 세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마치 리츄얼과 같이 하나의 지속적인 삶의 방식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의 차이점

세상이 추구하는 리츄얼은 자아의 완성만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이 기준은 단순히 내 삶의 목표를 넘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는 궁극의 목표를 바라보게하며, 그 여정에 동참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우상을 왜 만드는거지?

탐욕의 말로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약 1:14~15)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골 3:5)

유혹에 약한 존재 인간

인간은 여러 형태의 자극에 민감합니다. 그중 가장 민감한 것이
바로 시각입니다. 인간은 무언가 미혹될만한 것들을 보면 곧장
그것을 내 삶에 우선 순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렇기에 우상을
만드는 것은 곧 내 삶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로 귀결됩니다.
하나님은 그 근원이 되는 형상의 제작으로부터 우상숭배를
막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중재

진정한 중재자는 단 한명이다

고대 근동에서 신과 관련된 물건들은 다 그 신의 능력을 품고있다 여겼 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과 관련된 모든 물건이 그저 물건일 뿐이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대신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뿐임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 습니다. 우리가 다른 물건들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들이 되길 소망합니다.